

통화 녹취록

감 : 준위 ○

박 : 원사 박

2021년 5월 16일 오전 10시 56분 05초

박: 네 감독관님

감: 어 집이니?

박: 네

감: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내가 이 그 잠깐 동안 거실 들어갔을 때 내가 몇 개를 만졌어 종이 이런 거를.

박: 어 그래요?

감: 어 근데 이게 그때는 내가 이게 만질 때까지는 몰랐는데 만지고 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참 창피하겠다 이렇게 했
결랑? 이거를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그냥 탁 놓고 나오면서 네가 날 불렀잖아 “아 나오세요” 막 이랬잖아.
나가면서 이게 막 까먹은거야.

박: 뭘 건드렸어요?

감: 어.

박: 근데 건드릴게 없었는데?

감: 건들게 없었는데 그 거실에 내가 거실 쪽으로 갔잖아 그 문을 열고 원래 나갔어야 됐는데,

박: 그게 저도 그거는 얘기를 했는데?

감: 문을 열고 나갔어야 했는데 문만 열어주고 그 손님 받는 것처럼 내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따라 들어왔잖아.

박: 거실로.

감: 그렇지.

박: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감: 그게 현관까지는 있었잖아. 거실까지 갔다가 그게 보니까 에이포 이렇게 있는거야.

박: 거실에?

감: 거실 한쪽에 그 노트 하나하고 에이포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탁 완전 깨끗한 백지였는데, 그냥 나
도 모르게 그걸 만진거지. 그 순간적으로 어? 뭐 다른 잡생각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아니고 그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
서 그냥 어느 순간 봐서 그런거야. 만질때는 몰랐는데 ‘이건 큰일났다 아 그래도 욕먹더라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탁 놓고 얘기 해야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이게 그 나오면서 보고 그때부터 기억이 그 안에서
의 기억이 아예 까먹었어. 근데 어제 생각이 났어 어제. 갑자기. 아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잤다 내가.

박: 연락 왔어요 누구한테?

감: 연락 안 왔는데 아무한테.

박: 아 감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감: 어. 생각이 났다니까.

박: 아 생각이 났다고. 그거 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감: 그래도 이게 아 그걸 왜 얘기를 안했지? 아 이게 또 어제 밤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나중 되면 더 그 뭐야
이 이렇게 된 거에 들어 가가지고.

박: 에이포지에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요?

감: 어 아무것도 없었어.

박: 그러면 됐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나?

감: 아니 내가 만졌잖아 여자피 지문이 이게 다 나올건데.

박: 그게 나올려나?

감: 그래서 이게 내가 그게 그래서 까먹었나봐. 이게 뭔가 크게 있었으면 그게.

박: 그거는 그냥 나중에 뭐 물어보면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깜빡했다고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뭐가 있었는지 저도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감독관님 문 열어주고 다시 거실로 가서 그냥 멍하니 서있었다고만 얘기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현이 상태를 확인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 아 이거 하

박: 거기서 뭘 만진거는 보지도 못했고 일단은.

감: 나도 아무생각 없이 문열어주고 너 이렇게 올 것 같아서 그냥 나온건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서있어 생각 없이 그냥 만졌어. 그때 만졌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거 얘기 해야겠다 만지면 안되는다는 거 그건데. 이게 아 미쳤다 진짜.

박: 침대 맞은 편에 책상에 있는 에이포를 만진거예요?

감: 어디?

박: 책상에 있던 에이포지를. 에이포지가 땅바닥에 있었어요?

감: 아니 어디 올려져 있었어

박: 들어가자마자 좌측 편으로 책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 아냐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 오른쪽에.

박: 안쪽으로요? 책상이 안쪽에 있나?

감: 아니 책상이 아니고 뭘지 모르겠는데? 책상이 아니고 컴퓨터 위? 컴퓨터였나?

박: 컴퓨터도 좌측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감: 그래?

박: 그거 그러니까 배란다 창을 보고 좌측 편에.

감: 아 그쪽으로는 아예 안갔고 우측.

박: 어 우측에는 침대? 저는 안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쪽에는 침대가 있었지 않나?

감: 아니 침대 같은게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게 하 어제 이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난거야.

박: 그래서 잠을 못주무셨어요?

감: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참 되게 오해 살 그거고 이게 되게 아.

박: 들어와서 뭐 만졌다는게?

감: 어.

박: 한 장이었어요? 에이포지가?

감: 아니 한 장 아니고,

박: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감: 어 여러 개 하고 그 노트? 공부노트? 노트 위에 몇 장이 있었던건데 아 이거 원 진짜. 노트 위에 몇 장이 있었어.

박: 전 새것인데 그걸 왜 만졌지? 근데 이거는 아 얘기를 해야 그때는 반드시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그 자리에 그냥 딱 놓은거잖.

감: 아 집었었어요 그거를.

박: 어 집었어. 집었다니까. 그걸 잡고 나서 보고 딱 이게 생각이 든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놓았지 이미 만져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놓고 아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감: 하튼 물어보는 거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박: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변명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감: 지문 남을까봐 그런거 싫어요 감독관님.

박: 어 지문 당연히 남겠지.

감: 한번 인터넷 찾아보셨어요?

박: 아니 안 찾아봤는데?

감: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괜히 얘기를 하면 별일이 되잖아요 나중에. 어 이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5일이나 지나버렸는데.

박: 근데 여차피 개네가 가져갔을거야 그 수사하는 애들이.

감: 그럼 인터넷부터 검색을 해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문이 참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 의도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

박: 종이만 만진거잖아요.

감: 뭐 의도 이런거를 생각할 겨를이 있나.

박: 그러니까요 뭘 찾겠다고 한건 아니잖아요.

감: 어 아니 그냥 멍 했는데 에이포를 보는 순간 그냥 봤어 달려들었어.

박: 음 어 저는 못봤는데?

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지 한 2초도 안됐어 2초나 되나?

박: 2초 엄청 긴 시간이던데 보니까.

감: 그게 딱 보고 내려놓고 돌아서니까 너 다 보고 그런거 같은데?

박: 어 제가 문 열어주고 들어가자마자 감독관님 쪽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이 상태만 빨리 확인하고.

감: 어 내가 왜들어갔지 거기로?

박: 그러기에 빨리 나오시라고. 만진거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 하 한번 인터넷부터 쳐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감: 알았어.

박: 인터넷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감: 어.

박: 네.

감: 잘 쉬어.

박: 네 쉬십시오.

통화 종료 (총 10분 45초 통화)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 07분 34초

박: 네.

감: 야 이게 뭐 찾아보고 이러면 더 이상해서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 대대장님부터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

박: 에이포지를 만졌다고?

감: 노트 한권하고 같이 위에 있던 거.

박: 오늘?

감: 이게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때서부터 이게 맨붕왔어. 어제 한 밤 열시 넘어서 열시?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뭘 얘기를 해버려야 이게 후련할지.

박: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자꾸 물어보는게 그렇더라고요 그 상황을 자꾸 왜 그렇게 했냐 자꾸 물어온다고요

감: 내가 왜그랬지 아 정말.

박: 그게 만졌으면 그게 다시 물어볼거예요. 그때 왜 만졌냐 그거를 생각하셔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감: 어 알았어.

박: 네.

박: 내가 좀 이따가 대대장님 전화하고 대대장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

감: 대대장님 만나자고 하려고요?

박: 아 근데 그것도 지휘 부담이잖아. 먼저 얘기를 안할 수는 없잖아.

감: 이게 뭘 하려면 대대장님 옆이고 자꾸 옆에있어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박: 아 그때 아예 가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또 엄청 후회되는거야. 내가 나간게.

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뭐야 수사관에게 그렇게. 지금 뭔가 빨리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개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는 모르는 상태인데, 사람 그러는거를. 지금부터는 그거를 그냥 나도 좀 수사관들이 그렇게 조사하는 데 대해서 나도 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개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박: 아 그거 그때 왜 내가 나가가지고 참. 후회가 보통되는게 아니야.

박: 하 대대장님은 이를 데리고 가야지, 근데 이를 데리고 갔으면 개 쓰러졌을 지도 모르겠다. 죽은 장면을 보기는 쉽지가 않으니깐. 근데 누구든 답을 못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도 모르는데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으면 골든타임 놓치는거 아니냐.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감: 어 알았어.

박: 네 필승.

통화 종료 (총 3분 27초)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 22분 52초

박: 네.

감: 아 그냥 생각 안나는 걸로 할게 그냥.

박: 뭐 어디 봤어요?

감: 아니 안 봤는데 아니 불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지 말라고 해서.

박: 아 핸드폰 때문에. 아 제가 봤는데 종이도 지문이 남는다고는 하네요.

감: 아 그치 남지 다.

박: 그냥 생각 안 난걸로.

감: 아 그것도 웃긴데? 이제 생각이 나버렸는데?

박: 생각 안난걸로 하세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형수님은 안 난걸로 하자고 하세요?

감: 아니 그냥 뭐 얘기는 해도 되는데 뭘 찾아보고 이런걸 하지 말라는거지. 핸드폰 컴퓨터에서.

박: 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종이도.

감: 근데 그게 뭐 오래가고 그러냐? 오래가겠지.

박: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니까. 아 어떻게 아니면 내일 얘기할까요? 생각 뭐 좀 더 해보시고, 지금 가서 해봤자 뭐 달걀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감: 그래 알았어.

박: 네 마음 편히 쉬세요.

감: 이게 한번 생각이 나니까 편히 안되네. 원래도 안 편했는데 그냥 눈 감으면 떠올라가지고.

박: ~~아~~ 그러니까요 그게 왜 생각이 나서.

감: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잠을 못자겠어. 엄청 피곤해야 이게 잠이드는데.

박: 아니 어떻게 상담은 받으셨어요? 별건 없죠 상담받아도.

감: 내가 그런걸 많이 해보다보니까, 그게 '저쪽 사람 반응이 이렇거다' 이거를 알아버리니까 크게 힘이 안되더라고.

박: 저도 뭐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잠깐 갔다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뭘 말을 해야하는지를 그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고 아침에 결정하시죠 뭐.

감: 그래.

박: 네 알겠습니다.

감: 그래 잘 쉬어.

박: 네 쉬십시오.

통화 종료 (총 2분 35초)

021년 5월 17일 오전 06시 27분 40초

박: 네 필승.

박: 출근 안했어?

박: 했습니다.

감: 어. 주임원사 방에 없는데?

박: 지금 담배 피러 바로 올라왔습니다.

감: 어.

박: 네.

통화 종료 (총 11초)

2021년 5월 17일 오전 08시 08분 33초

박: 네 감독관님.

감: 어 수사실에 감독관한테 전화 왔걸랑? 이제 목격자 진술하러 오라고.

박: 아 감독관님만? 저는 금요일날 갔다 왔어요. 얘기 하실거예요?

감: 아 그게 문제네 지금 고민이 또 되네. 원래 기억 안난다고. 아 이게 골치아프다. 이거 기억이 나서 골치가 아프네 또. 예휴.

박: 그러면 그냥 하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

감: 그러니까. 아 골치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지?

박: 뭐 마음 편하시려면 얘기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감: 그런 것 같기도 하지.

박: 또 근데 대대장님한테 얘기 안했잖아요.

감: 어 그러니까 대대장님 계시냐?

박: 저 지금 수통에 가고 있어요.

감: 수통 또?

박: 병사 한명 입원시켜야 해서. 아 얘기를 하는게 낫겠나 저도 만사가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지금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 일단 대대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것도 부담이고.

박: 얘기하면 또 대대장님은 어쩔 줄을 모를거예요.

감: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박: 얘기하면 결정을 딱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가서 얘기를 하시다가 상황 봐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감: 어 그게 낫겠지?

박: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근데 왜 만졌냐고 또 물어볼거란 말이야.

감: 그러니까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박: 생각이 없었는데도 자꾸 얘기하라고. 그게 왜 만졌냐 그때 왜 만지게 되었냐 자꾸 물어보니까 저희가 그런거를 따지고 하나? 예휴 아니면 상황 봐서 하세요 그냥.

감: 어 알았어.

박: 네 필승.

감: 응.

통화 종료 (총 2분 9초)

2021년 5월 18일 오후 12시 14분 46초

박: 네 감독관님.

감: 어 그게 뭐지 중대 와서 밥 먹었다. 그리고 중대에 있어.

박: 알겠습니다.

감: 1시에 또 같건데 그전에 한번 들릴게.

박: 네.
감: 어.

통화 종료 (총 14초)

3-5000